



스승 최승희(아래줄 가운데)와 함께 한 김백봉 교수(아래줄 왼쪽).



제자들에게 부채춤을 가르치는 김백봉 교수.

# 보살춤으로 시작 만다라로 회향

## 김백봉 교수 팔순에 제자들 헌정무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월 13~14일

보살춤의 대가, 전설적인 무용수 최승희의 수제자이자 한국 신무용의 대모라 불리는 김백봉 명예교수(경희대, 올해 팔순을 맞은 무용가 김백봉 명예교수를 위해 제자들이 헌정무대를 마련한다.

4월 13~1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열리는 '한국 신무용 80년'과 김백봉 예(藝)의 삶-맥(脈)', 김백봉 교수를 조명한 영상을 시작으로 '화관무' '녹음방초' '타의 예' '선의 유동' '김영인 명장의 회심곡' '평란의 제단' '굴레' '부채춤' '만다라(영상)' '태권무' 등 김백봉 교수를 사사한 제자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김 교수의 딸인 김백봉무용단 단장 안병주 교수(경희대 무용학부)와 애제자 김말애무용단 김말애 단장(경희대 무용학부) 등이 70여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공연한다.

김백봉 무용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화관무'는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2천명이 출연하는 대형 군무로 재창작돼 한국의 얼이 담긴 장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작품. 김 교수가 '자신의 고향은 작품 속에서도 늘 그림처럼 생명의 근원처럼 살아나는 곳'이라 했던 고향의 소박한 정서와 자연친화적 색채가 깊게 묻어나는 '녹음방초', 공들여 가르친 제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 둘씩 떠나가는 허탈감을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지상에 닿는 순간 물방울로 사라지는 것에 비유한 서정적인 작품 '선의 유동' 등이 눈길을 끈다. 김백봉 교수의 대표작 외에도 김말애 예술총감독의 창작 '굴레'와 화려하게 재구성된 태권무, 명장 김영인의 회심곡 공연도 마련돼 무대를 풍성하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부처와 보살이 그려내는 천상극락을 표현한 '만다라'이다. 김백봉 교수가 직접 추는 '만다라'는 영상으로 무대를 사로잡는다. 최승희의 보살춤을 기반으로 불심에 몰입하면서 느끼게 된 마음가짐과 선한 삶의 자세를 군무로 대형화한 '만다라'는 불심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 딸 안병주 교수, 김말애 단장 등 참여

### '화관무' '선의 유동' 등 대표작 공연

### 불심 표현한 창작무용 '만다라' 눈길

### 영상 가미한 대형무대... 직접 출연



김백봉 교수는 4월 13일 무대에서 스승 최승희의 보살춤을 자신의 불심과 결합시켜 창작한 '만다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표현한 김백봉표 창작춤이다.

영상으로 펼쳐지는 보살춤 '만다라'는 우주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뜻이 모든 중생들에게 태양의 빛처럼 넓혀가며 퍼져가는 느낌이 들도록 입체적 환영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02)399-1114~7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 김백봉은

### 최승희 춤 맥 보존·재현에 한평생

1927년 평양에서 트러운전사의 딸로 태어난 김백봉은 평양의 명윤여학교에 다니던 13세 때 아버지와 함께 진남포의 최승희 무용공연장을 찾아가 제자가 됐고, 그해 6월 18일 최승희를 찾아 일본 도쿄(東京)로 갔다. 1943년 최승희무용단 단원이 되어 일본·만주·중국·동남아시아 각국을 순회 공연하면서 최승희의 춤맥을 이었다. 1946년 평양에 있던 최승희무용연구소 부소장 겸 상임안무가로, 1949년 최승희무용단 제1무용수로 활약했다. 스승으로부터 '화관무' '부채춤'을 전수받았다.

1946년 6월 서울로 돌아온 김백봉은 박기홍에게서 승무를, 이 동안에게서 태평무와 승무를 전수받았다.

1953년 서울에 김백봉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1965~1992년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1~1985년, 1987년 예술원 회원이 됐다. 1992년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뒤 명예교수가 됐다. 1995년 김백봉춤보존회가 결성됐고, 1996년에는 예약당에서 최승희의 춤을 재현하는 대공연을 열었다.

1953년 서울시 문화상, 김보디아 문화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 1981년 보광문화훈장, 1988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에서 뽑은 '20세기를 빛낸 예술인'으로 선정됐다.

## “춤사위·의미 한눈에...”

### 능화 스님 <한국의 불교무용> 펴내

인천시무형문화재 10-가호 법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법패와작법무보존회 이사장)이 교리와 사상을 접목시킨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가운데서 불교무용 유래와 의미를 설명한 <한국의 불교무용>을 펴냈다.

능화 스님은 “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고자 <한국의 불교무용>을 펴냈다”며 “직접 익히고 전승해 온 한국불교무용의 전통 춤사위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무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악보처럼 활용하는 무보(舞譜)를 만들고자 했다”고 발간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의 불교무용>은 불교무용인 작법무의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경전에 나타난 무용에 관한 문헌 자료를 먼저 살펴본다. 불교무용은 바라춤 8가지, 나비춤 18가지, 법고춤 1가지, 타주춤 1가지 등 4종류 28개로 구성된다. 이 책에서는 작법무의 기본이 되는 바라춤의 천수바라, 나비춤의 다계나비, 법고춤, 타주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불교무용에서 쓰이는 음악과 악기, 각 춤별 춤사위의 명칭도 세세하게 해설한다. 각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용의 비교작업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능화 스님은 “불교의례 예술의 꽃인 작법무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응집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을 고취시키고 재의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작법무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 불광사 중창불사

우리는 타오르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정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 가 모 니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